

류현진, 6년 만에 완봉승...시즌 4승

애틀랜타전 9이닝 4피안타 6탈삼진 무실점...올해 최고의 피칭 완벽 제구력 호투 뒷받침...내셔널리그 전구단 상대 승리 '쾌거'



LA 다저스 류현진이 7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LA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해 투구하고 있다.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32·LA 다저스)이 약 6년 만에 완봉승으로 시즌 4승 달성에 성공했다. 류현진은 8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MLB)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홈경기에서 선발등판, 9이닝 4피안타 6탈삼진 무실점 호투를 선보였다. 류현진은 지난 2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원정경기에서 8이닝 1실점 호투를 펼치고도 승리투수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경기에서는 경기 초반부터 타선의 지원을 받아 순쉽게 경기를 풀어나갔다. 경기 초반에 패스트볼 위주의 피

칭을 한 류현진은 경기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구질을 선보이며 상대 타선을 압도했다. 특히, 스트라이크 존 내외곽을 폭넓게 활용하는 제구력을 자랑했다.이 경기 전까지 11타수 8안타로 강했던 ‘천적’ 프레디 프리먼을 상대로도 4타수 무안타로 평균 투였다. 다저스는 9-0으로 승리했다. 류현진은 9회까지 마운드를 지켰다. 2013년 5월 29일 LA 에인절스에서 완봉승을 거둔 이후 2170일 만에 생애 두 번째 완봉승을 올렸다 또한 내셔널리그 전구단을 상대로 승리하는 기업을 토했다. 류현진은 시즌 4승(1패 달성)에 성공한다. 시즌 평

균자책점은 2.08으로 떨어뜨렸다. 류현진은 1회초 패스트볼을 앞세워 삼자범퇴를 기록했다. 투심 포심, 첫패스트볼을 앞세워 이지 알비스, 조쉬 도널슨, 프레디 프리먼을 모두 범타로 잡아냈다. 3-0의 리드를 안고 2회 마운드에 오른 류현진은 첫 타자 로날드 아쿠냐에게 4구째 한가운데 물린 직구를 던졌다. 류현진은 투구 후 장타를 의식한 듯 높았지만, 타구는 워닝트랙 앞에서 중견수에게 잡혔다. 이후 닉 마카키스를 낮은 직구로 내야방어를 유도했고, 덴스비 스완슨을 상대로 좌익수 뜬공으로 잡아냈다.

오승환, 또 흔들...SF전 1이닝2실점 ERA 7.90

콜로라도 로키스의 오승환(37)이 또 무너졌다. 오승환은 8일(한국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쿠어스 필드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1이닝 3피안타 1탈삼진 1볼넷 2실점을 기록했다. 팀이 3-7로 뒤진 8회초 등판한

오승환은 선두타자 맥 윌리엄스에게 볼넷을 주며 출발했다. 후속 브랜던 크로프트를 헛스윙 삼진 처리한 뒤 케빈 필리는 10구 승부 끝에 좌익수 뜬공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2아웃을 잡아놓고 급격히 흔들렸다. 2사 1루에서 파블로 산도발에게 우전 안타를 맞은 뒤 조 패니의 내야 안타로 2사 만루

에 위기에 몰렸다. 결국 실점을 피하지 못했다. 스티브 두커에게 2타점 좌전 적시타를 허용했다. 패니가 2루를 지나 3루를 노리다 아웃되면서 길었던 8회가 마무리됐다. 이닝 동안 31개의 공을 던진 오승환은 4-9로 끌려가던 9회초 D J 존슨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오승환의 시즌 평균자책점은 7.11에서 7.90으로 올랐다. 콜로라도는 4-1패로 완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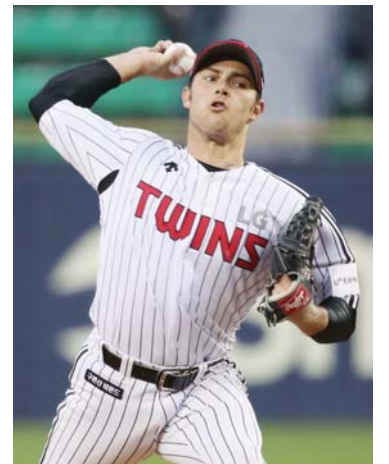
LG 윌슨, KBO리그 4월 MVP

평균자책점 0.57

KBO(총재 정운찬)와 KBO 리그 타이틀스폰서인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이 공동 시상하는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4월 MVP로 LG 타이틀러 윌슨이 선정됐다.

윌슨은 한국야구기자회 기자단 투표와 신한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한SOL’에서 진행한 팬 투표를 각 50%의 비율로 합산한 결과 총점 50.86점을 획득, 23.42점을 얻은 두산 호세 페르난데스를 제치고 KBO 4월 MVP가 됐다. 기자단 투표(29표 중 13표)와 팬 투표(3만6784표) 모두 최다 득표를 기록한 윌슨은 ‘신한 마이카 4월 투수상’에 이어 MVP까지 차지하게 됐다.

윌슨은 개막전인 3월 23일 광주 KIA전에서 4월 27일 대구 삼성전까지 총 7경기에서 선발 출장해 4승 무패를 기록했다. 4월까지 출장한 모든 경기에서 60% 이상씩을 투구해 해당 기간 총 47%이닝으로 전체 투수 중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했고 자책점은 3점만 내주며 0.57의 평균자책점



으로 해당 부문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윌슨이 기록한 평균자책점은 개막 후 7경기 연속 선발 등판 기준으로 1987년 OB 계형철이 기록한 평균자책점(1.09·41%이닝 5자책점)을 경신한 역대 최저 평균자책점 신기록이다.

4월 MVP에 선정된 윌슨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함께 부상료 60만원 상당의 신한은행 골드바가 주어질 예정이다. 10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앞서 월간 투수상과 함께 시상한다.

뉴스스

‘결국 높이싸움’...KBL 모든 구단 외국인선수 전원 재계약 X

신장 제한 폐지, 새로운 선수 물색

프로농구 사상 처음으로 모든 구단이 기존의 외국인선수들과 재계약을 포기했다. 프로농구를 주관하는 KBL은 8일 10개 구단 모두 2018~2019시즌 국내에서 뛰 외국인선수들과 재계약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까지 10개 구단은 일시 대체 외국인선수를 제외한 마지막 계약 선수 20명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10개 구단이 모두 재계약을 포기했고 1997년 리그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존의 외국인선수들이 모두 한국을 떠나게 됐다.

외국인선수 제도 변경이 영향을 미쳤다. KBL은 2018~2019시즌부터 외국인 선수의 신장 기준을 장신 200cm 이하, 단신 186cm 이하로 적용하기로 했지만, 도입 당시부터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며 논란에 휩싸였다. 시즌 만에 장·단신 외국인 선



지난해 4월 20일 서울 SK 나이츠가 드린 테리코 화이트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 KBL 센터에서 KBL 신장제한과 관련해 키를 측정하고 있는 모습.

수 신장 제한 규정을 없애면서 각 구단은 1읍선으로 기용할 새로운 장신 선수들을 물색하고 있다.

자연산 돌레길

■ 실이 있는 지리산 돌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돌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란 구래군은 지리산순천, 창새미골, 회현사, 선전길,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물야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